

교육청 주도의 독서진흥사업에 대한 사례연구*

-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Reading Promotion Projects Led by the Korean Education Office Focused on the Project of ‘Ulsan Studnets’ Reading Day~

윤 유 라(You-Ra Youn)**

이 순 영(Soon Young Lee)***

< 목 차 >

I. 서론	1. 조사방법
II.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의 추이	2. 조사결과
1. 사업의 추진체계	IV.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2. 사업의 주요과제	V. 결론
III.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적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이 주도하는 독서진흥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평가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헌조사를 통해 진행한 사업의 내용분석은 사업의 도입단계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어왔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학교 현장의 사업 수행 실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은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향후, 담당 인력의 확보와 독서환경의 정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독서정책,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독서진흥사업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reading promotion projects' led by the Korean Education Office and to ponder meaning of the projects, and then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project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selected to analyze a reading promotion project called as "Ulsan Students' Reading Day~" by Ulsan MetropolitanCity Office of Education as a case and sample for the study. The study was designed to use two research methods and phases to explore the project in detail: documentary research and survey method. First,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terature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projects but focused on examining progresses of the project such as situations from the introduction stage to the settlement stage. Second, the study conducted survey to collect data from teachers and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projec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detailed contents of questionnaires contain current states of the project in each school, assessment of the project, and requirements for the project. The study found that the project resulted in positive influence to students' reading skills and education. In spite of these positi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s to solve some limits in the current states of the project. Reading promotion projects, in long run, need to have professional staffs with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 projects, to improve environments for reading promotion, and to encourage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to the projects.

Keywords: Reading policy, Reading education, School library, Ulsan students' reading day, Reading promotion project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학교 단위 생활화 방안 모색』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18년 울산교육청의 지원으로 수행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효과성 검토 및 정책 제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ryoun@deu.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libry1210@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2월 19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3월 1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225-250,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225]

I. 서론

미래사회에서는 성찰적 사유가 가능하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미래사회의 학교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독서가 중시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알기위해, 사색하기 위해, 혹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해 왔던 독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도 인식되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 「초·중등학교 독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독서활동이 특정 교과에 주도하여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독서활동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독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수업과 수업 이외 활동을 모두 포괄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 가능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교원과 학부모가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셋째,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 노력을 기울이며, 넷째, 학교와 지역 중심의 독서문화운동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독서문화를 생산하고, 다섯째, 도서관과 같은 관련 지원시스템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1).

울산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 독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관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특색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역량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독서에 대한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울산학생 책읽는데이~’라는 명칭아래, 울산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독서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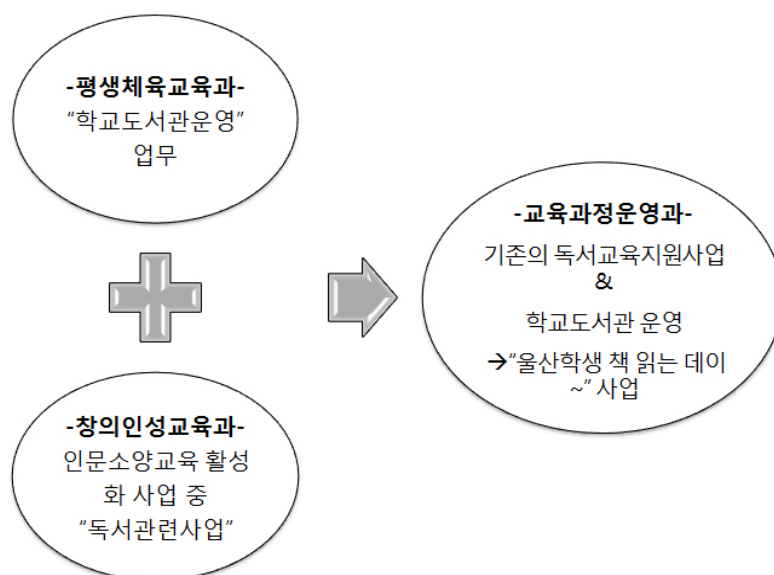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진행되어오고 있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의 진행과정 및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울산지역의 각 학교 독서교육담당교사, 과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사업 수행 후의 성과,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의 실태와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교육청 주도의 독서교육 사업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추이

1. 사업의 추진체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 울산시교육청의 독서관련 업무는 교육청의 각과에서 분화하여 담당하고 있었다. 2015년~2016년의 독서관련업무 자료를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서는 교육과정운영과로 「읽기·쓰기·토론 통합 교육」을 위한 책을 품는 행복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독서생활의 전반적인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관련부서는 창의인성교육과로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의 일부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세 번째 관련부서는 평생교육체육과로 독서환경구축 및 개선을 위해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세우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처럼 3개과로 독서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던 관계로 독서교육 사업의 체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7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을 시작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업무분장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운영과”의 주도로 독서교육진흥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그림1>, <표 1> 참조).



<그림 1> 울산시교육청의 독서업무통합 모형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표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및 부서별 업무 분장 변경 및 추가

	업무 부서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평생체육교육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7항의2. 학교도서관운영	2. '학교도서관 운영' 삭제
	교육과정운영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3항 2.의 마. 독서교육	마.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변경
부서별 업무 분장 변경 및 추가	평생체육교육과	학교도서관업무 1)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2)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4) 울산학생책읽는데이 5) 학생독서생활화지원 T/F팀 운영 6) 학교 공공도서관 관리 및 지원 7)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및 협력망 운영 관리	기존의 학교 도서관 업무 중 1)-7)항 중 6)항만 평생체육교육과업무로 유지하고, 교육과정운영과업무로 이관함
	교육과정운영과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지도 등	기존업무에서 다음의 업무로 변경 및 추가하여 추진함 1) 자유학기제 운영 총괄 2) 교육과정 운영 3) 학교 및 교원컨설팅 4)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 5) 교원, 학생, 학부모 워크숍 6) 연구학교 및 교사연구회 7)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및 지원 8) 자유학기제 수업공개 운영 9) 자유학기제 운영점검 10) 기타 자유학기제 공모사업 등

*2017년 울산시교육청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변경(안) 참조

이후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운영관련 업무 중 ①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 ②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운영, ③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④“울산학생책읽는데이~”사업 운영, ⑤ 학생독서생활화지원T/F팀운영, ⑥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및 협력망 운영관리, 라는 6가지 영역의 업무를 이관하여 담당하게 되었으며,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진행해왔던 인문소양교육의 세부활동 중 하나인 ‘학교생활 속의 독서활성화 사업’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주도하도록 변경하였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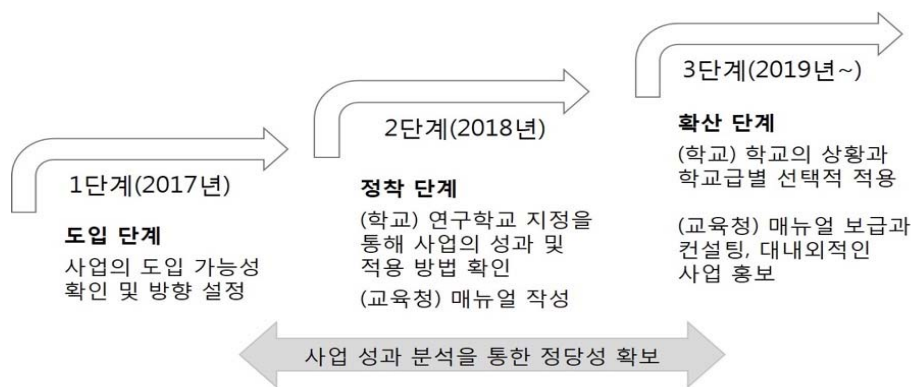
2. 사업의 주요과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은 <그림 2>와 같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2017년도 사업의 도입가능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및 2019년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7년과 2018년도 즉 도입과 정착단계의 사업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과정운영과의 독서교육연계영역

창의인성교육과의 학교생활 속 독서활성화 내용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세부 활동
- 교과 연계: 교과 연계 독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활동, 학교도서관 등을 활용한 독서를 통해 독서습관 및 인문소양 함양	• 일과중 10분 책 읽기(전 유초, 중, 고)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전교과연계 독서활동 수행평가 반영 권장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독서활동 관리 : 학교급간 연계성 있는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학 역량 강화	• 교과연계도서 일부 낭독 및 북토크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체계적·지속적인 독서이력 관리를 위한 독서교육종합시스템 활용	•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고전읽기 등을 통해 폭넓은 독서와 심층적 책읽기 능력 향상	• '1학기 1권 책읽기'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독서체험 확대 : 사계동행, 독서책쓰기 동아리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가족 독서캠프 등 학교단위 독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교사와 학생,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 등 다함께 책읽는 분위기 조성 『울산학생책임는데이~』연계

* 2017년도 울산시교육청의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안)을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2> 사업의 3단계 수행과정 및 내용

가. 2017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통합된 운영체계로의 정비 후 체계적인 독서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진행한 독서교육관련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기존 독서 정책이 주로 습관적 독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독서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독후감 쓰기 및 경쟁 위주의 독서교육에 치중되어 학생의 자발성 및 학교(교원)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의 중심인 학교도서관의 공간 협소, 장서 및 운영 인력 부족 등 독서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을 진행하였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의 첫해인 2017년도에는 ‘책 읽는 학생, 책 읽는 울산’을 비전으로 독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였고, 총 4가지 중점과제와 17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7가지 추진과제는 전체 필수이행과제 14개, 권장 20개로 총 34개의 활동으로 나누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과제와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2017년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주요내용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내용	구분
1. 학교교육 과정 연계 독서교육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	학교별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계획 수립	필수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	필수
		학년말 취약시기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1학기 1권 읽기 교과별 실시	권장
		교과별 독서활동 수행평가 반영	필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독서활동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다양한 독서활동 추진	권장
		방과 후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 개설 및 추진	권장
		자유학기제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수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	외부기관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및 캠프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관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권장
2.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교원 인문·독서교육 역량 강화	교원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권장
		교원 인문소양교육 연수 과정 참여	권장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참여	권장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연수 참여	권장
		‘사람책 도서관’ 운영	권장
		‘사람책 도서관’ 대출 활용	권장
3.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필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필수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단위학교 도서구입비(학교표준교육비의 3%이상) 편성	필수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	필수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운영	권장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수
공공도서관 학생 독서활동 지원	인근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4. 행복 독서 문화 확산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정보 나눔터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권장
	읽기를 통한 독서생활화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필수
		“필사(筆寫)적으로 책읽는데이~”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필수
	토론을 통한 독서생활화	학교별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필수
	쓰기를 통한 독서생활화	“울산학생 책쓰는데이~” 초등 학교문집 발간	필수
		“울산학생 책쓰는데이~” 중등 동아리별 책출간	필수
	함께하는 독서생활화	“다함께 책읽는데이~”(사제동행) 동아리 응모	권장
		“다함께 책읽는데이~”(교직원동행)동아리 응모	권장
“다함께 책읽는데이~”(가족/이웃동행)동아리 응모		권장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축제 참여	권장

중점과제1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4가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는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로 5개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교별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계획 수립’,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 ‘교과별 독서활동 수행평가 반영’을 필수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자유학기제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교내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필수로 되어 있다.

중점과제2는 교원 대상 연구,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지도교사 워크숍, 학부모 대상 동아리 지원 및 연수를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3가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평가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역량강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중점과제3은 독서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학력향상 도모, 학교 독서교육의 교수-학습 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추진과제는 5가지이며 주요 활동 내용은 7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를 위해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이 필수로 되어 있으며,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여 ‘단위학교 도서구입비편성’,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등을 필수로 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다.

중점과제4는 ‘행복 문화 확산’을 주제로 울산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독서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독서활동 중 읽기-토론쓰기로 구성된 5개 주요활동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읽기영역에서는 소리내어 읽기와 직접적으로 쓰면서 읽는 활동을, 토론영역에서는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쓰기영역에서는 초등에서는 학교문집, 중등에서는 동아리별 책 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나눔터를 만들어 학교현장과 지역사회 나아가 타시도의 교육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8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8년도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사업은 2017년 현장실무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독서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학교도서관의 정비’, ‘공공도서관의 협력구축’ 뿐 아니라 ‘정보나눔터의 활용’을 통해 학교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둘째,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청의 역할을 ‘현장 지시형’이 아닌 ‘현장 지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하여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필수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각 활동은 일선 학교에서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괄적인 활동’이 아닌 ‘선택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2017년도 사업에 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이 주도하는 체험형 독서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 ‘울산학생책읽는데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로 책읽기’, ‘국내외로 떠나는 문학기행’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흥미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호응을 높이고 있다.

<표 4> 2018년도 ‘울산학생책읽는데이~’의 변화내용

□ 1차년도 성과 및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연계시스템등 독서인프라 구축을 강화
□ 교육청의 역할이 현장 지시형에서 현장 지원형으로 변화
□ 일괄적인 활동 수행에서 선택형 활동 강화
□ 선택형 독서활동의 경우 현장 맞춤형지원강화
□ 교실에서의 독서활동 뿐 아니라 체험형 독서활동 강화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연계성의 강화

2차년도인 2018년은 4가지 중점과제와 22가지의 세부추진과제 아래, 필수 4개, 권장 27개로 구성된 35개의 주요활동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5>참조).

<표 5> 2018년도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주요내용

중점 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 활동 내용	구분	
1. 학교교육 과정연계 독서교육	독서교육 기본 계획 수립	학교별 및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독서 활동 기본 계획 수립	권장	
	교과연계 독서활동 확대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		권장
		자기개발시기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한 학기 한 권 읽기 국어과 및 타교과 실시		권장
		교과별 독서 활동 수행평가 반영(학년별 2과목 이상)		권장
	창의적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활동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독서관련 동아리 운영		권장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 프로그램 개설		권장
	표현과 이해 활동을 통한 독서생활화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선택 (1)
		“손글씨로 쓰며/필사(筆寫)하며 책읽는데이~”		
	창작 활동을 통한 독서생활화	(초등)“울산학생 책쓰는데이~” 학교/학년./학급 문집 발간		필수
(중등) “울산학생 책쓰는데이~” 동아리별 책출간			필수	
토론을 통한 독서생활화	학교별 토론 수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장	

2.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교원 인문·독서교육 역량 강화	교원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권장
		교원 인문소양교육 연수 과정 참여	권장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참여	권장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연수 참여	권장
	독서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운영	권장
인문소양교육 관련 활동 프로그램 운영		권장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교사,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활동	권장	
3.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권장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활동 실시	권장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단위학교 도서관구입비(학교표준교육비의 3%이상) 편성	필수
		학교도서관 자료선정의 기준에 맞게 도서 구입	권장
		학교도서관 학부모명예사서 운영	권장
	공공도서관 학생 독서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정보 나눔터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권장	
4. 울산독서 문화 확산	‘사람책 도서관’ 운영	‘사람책 도서관’ 대출 활용	권장
	함께하는 독서생활화	“다함께 책읽는데이~”(사제동행) 동아리 활동	선택1
		“다함께 책읽는데이~”(교직원동행)동아리 활동	
		“다함께 책읽는데이~”(가족/이웃동행)동아리 활동	
	책바람타고 여행한데이~	울산문학기행, 전국문학기행, 세계문학기행 추진 활동	권장
	“울산학생책읽는데이~”축제	“울산학생책읽는데이~”축제 전시 및 체험 부스 참여	권장
	책마루 열린 문학 콘서트 운영	책마루 열린 문학 강좌 참여 활동	권장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운영	학생참여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활동	권장
울산대 연계 학생인문학교실 운영	방학기간 활용 울산대 연계 학생 인문학교실 운영	권장	

중점과제 1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6가지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2개(선택1도 필수에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소리내어 책읽는데이’, ‘손글씨로 쓰며/(필사)하며 책읽는데이’, ‘(초등)학교/학년/학급 문집발간’, ‘(중등)동아리별 책 출간’이 필수 활동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소리내어 읽기’와 ‘필사’가 모두 필수였으나 2018년에는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중점과제 2는 교원 대상 연구, 독서교육지원단 운영, 지도교사 워크숍, 학부모 대상 동아리 지원 및 연수를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4가지의 세부추진과제, 7개의 주요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과 비교하여 인문소양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독서교육지원단운영이 추가되었으며, 모든 활동이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중점과제 3은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독서교육의 교수-학습 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가지의 세부추진과제, 7개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위학교 도서관구입비(학교표준교육비의 3%이상)편성’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독서문화확산 영역에 있었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이 환경개선의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중점과제 4는 다양한 책읽기, 토론, 책쓰기 연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울산 독서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가지의 세부추진과제, 9개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함께하는 독서생활화의 주요활동내용인 ‘(사제동행)동아리 활동’, ‘(교직원동행)동아리 활동’, ‘(가족/이웃동행)동아리 활동’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사업 내용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내용 비교

	2017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
중점과제	4가지	4가지
세부추진과제	16가지(17가지)	22가지
주요활동내용	34개	35개
활동구분	권장20개 필수14개	권장27개 필수4개(필수3개, 선택형5개)

Ⅲ.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적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1. 조사방법

가. 조사내용 및 구성

‘울산학생 책읽는데이~’가 울산시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들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정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장적용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도구개발을 위해 본 사업을 담당했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1시간씩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사업의 실천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공유하였고, 독서담당 교사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하여 실천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면담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총 6곳 학교의 사업 담당교사 6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먼저, 교사용 조사도구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향후의 방향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중점과제와 각 중점과제별로 제안된 3~4가지의 세부과제, 각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특히,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각 활동이 독서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필요정도, 각 활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정도, 각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과정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도록 4점 리커트 척도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현장에서 사업을 실천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용 조사도구는 학생입장에서 경험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학교에서 접한 책읽기 프로그램의 재미정도, 힘들정도, 도움정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사용과 학생용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은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설문문항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각 대상별 분야별 설문문항

유형	설문내용	문항 형태	문항수	
교사용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	•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점과제 •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과제	• 선택형	5문항
	주요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	• 주요 활동에 대한 필요정도 • 주요 활동에 대한 실천정도 •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정도	• 리커트 척도형	96문항
	사업에 대한 평가	•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 학생들에게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 점 •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	• 선택형 • 리커트 척도형	25문항
	사업의 발전방안	• 사업에 대한 개인적 의견	• 자유응답형	1문항
학생용	책 관련 인식	• 책을 읽는 이유 • 책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 선택형	2문항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재미정도 •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힘들정도 • 세부활동 및 책 내용의 도움정도 •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 리커트 척도형 • 선택형	61문항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적 의견	• 자유응답형	1문항

나.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사업의 평가를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례의 조사 모두 ‘울산학생 책읽는데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인 1학기 이후에 실시하였다¹⁾. 2017년도에 진행한 1차 조사는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e-mail 및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

1)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주요사업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무리되어 평가를 하고 있다.

루어졌으며, 2018년도에 실시한 2차 조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9일 까지 인터넷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²⁾.

1차 조사에서는 교사의 경우, 242개 학교의 담당교사와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22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으며, 학생의 경우 1,43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2018 년도의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집단 148명, 학생 2,69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에 응한 조사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8>, <표 9>와 같다.

설문내용의 분석은 문항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개별 문항 중 선택형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통해, 리커트 척도형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후, 초·중·고등학교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³⁾. 각 설문지의 마지막 문항을 통해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은 의미 있는 단어와 어구를 중심으로 개별 응답을 개념화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8> 조사 대상자 중 교사 집단의 특징

인구학적 특성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학교급	초등학교	166	52.0	74	50.0
	중학교	82	25.7	41	27.7
	고등학교	71	22.3	33	22.3
교직경력	5년 미만	26	8.1	27	18.2
	5~10년 미만	39	12.1	27	18.2
	10~15년 미만	60	18.6	36	24.3
	15~20년 미만	66	20.5	24	16.2
	20~25년 미만	50	15.5	13	8.8
	25~30년 미만	45	14.0	12	8.1
	30년 이상	33	10.2	9	6.1
독서업무 경력	처음 담당	23	9.0	24	16.4
	1년	96	37.6	38	26.0
	2년	58	22.7	42	28.8
	3년	48	18.8	14	9.6
	4년	12	4.7	10	6.8
	5년 이상	18	7.1	18	12.3
전 체		322	100.0	148	100.0

- 2) 울산 교육청 담당 장학관의 협조를 얻어 각 학교의 학년별로 한 학급씩 표집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는 설문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 5, 6학년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 교사의 도움을 얻어 학급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차이분석은 문항의 형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택형 문항은 χ^2 검정을 통해, 리커트 척도형 문항은 F 검정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9〉 조사 대상자 중 학생 집단의 특징

인구학적 특성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29	44.1	1,348	50.0	
	여	798	55.9	1,348	50.0	
학교급	초등학교	4학년	156	37.2	350	36.7
		5학년	132	31.5	352	36.9
		6학년	131	31.3	251	26.3
		소 계	419	29.3	953	35.3
	중학교	1학년	186	38.6	312	31.4
		2학년	157	32.6	371	37.4
		3학년	139	28.8	310	31.2
		소 계	482	33.7	993	36.8
	고등학교	1학년	137	26.0	282	37.6
		2학년	196	37.3	264	35.2
		3학년	193	36.7	204	27.2
		소 계	528	36.9	750	27.8
	전 체		1,433	100.0	2,696	100.0

2. 조사결과

가. 중점과제와 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교사를 대상으로 ‘울산학생 책임는데이~’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4대 중점과제 중 어떤 과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10> 참조).

〈표 10〉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4대 중점과제	2017년도		2018년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점과제1: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73	23.9	52	35.1
중점과제2: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8	2.6	3	2.0
중점과제3: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141	46.2	68	45.9
중점과제4: 울산 독서 문화 확산	83	27.2	25	16.9

*학교급별 $\chi^2=6.70(2017년도)$, $\chi^2=2.78(2018년도)$

그 결과, 독서교육 담당 교사들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모두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46.2%, 45.9%)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도에는 ‘독서 문화 확산’이 27.2%, 2018년도에는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이 35.1%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중점과제에 대한 학교급별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의 중점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과제는 무엇일까.

<표 11>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의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순위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119	37.9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65	43.9
2순위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	99	31.5	공공도서관 학생 도서 활동 지원	32	21.6
3순위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48	15.3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	26	17.6
	공공도서관 학생 도서 활동 지원	48	15.3			

조사 결과 2017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도서관 지원 확대’가 31.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와 ‘공공도서관 학생 도서 활동 지원’은 15.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47.3%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학생 도서 활동 지원’이 21.6%,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가 1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8년도부터 그 중요성이 증가된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에 대한 세부 중점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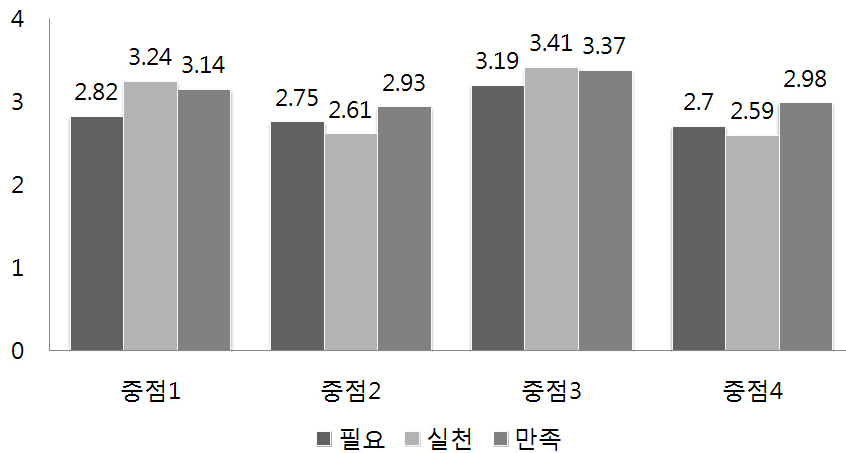
<표 12> ‘학교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의 세부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순위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	155	49.7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확대	65	43.9
2순위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연계	69	22.1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활동 확대	35	23.6
3순위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51	16.3	독서교육 기본 계획수립	20	13.5

그 결과, 2017년도에는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가 22.1%,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6.3%,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이 11.9%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도 여전히 ‘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4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연계’가 22.1%, ‘자유학기제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6.3%, ‘인문소양교육 및 동아리 운영’이 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각 세부과제의 실천과 성과정도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2018년도 세부과제별 필요정도, 실천정도, 만족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점과제별 중요도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점과제1 중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교과연계 독서활동 참여(낭독, 북토크, 주제탐구, 토론 등)’는 실천도와 만족정도 또한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중점과제3과 중점과제1은 중점과제 2, 4와 비교하여 활동 실천도와 만족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중점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교사들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의견이 아닌 현장의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따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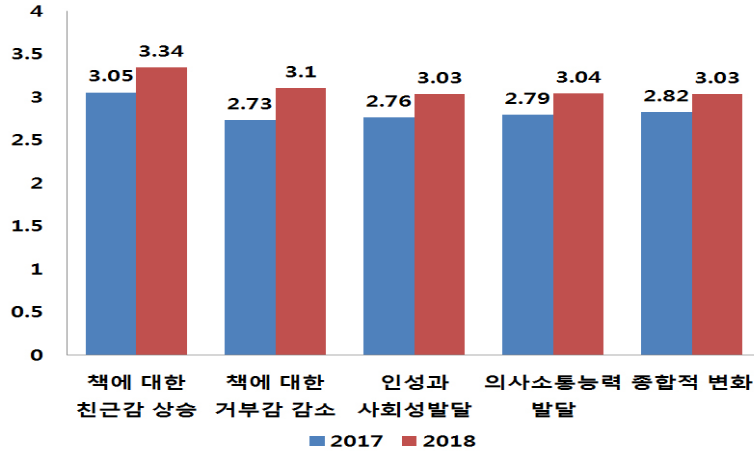
<그림 3> 중점과제별 필요, 실천, 만족정도에 대한 4점 척도 결과

이처럼,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학력향상을 도모하며, 학교 독서교육의 교수-학습 거점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점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과과정을 연계한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교사가 인식하는 주요활동의 성과와 필요성

교사 집단은 ‘울산학생 책읽는데이~’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 후 학생들의 독서 태도 변화, 두 번째는 사업의 주요활동내용을 수행하고 난 뒤 현장의 성과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독서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활동내용 수행 후의 만족도 또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13> 참조).



〈그림 4〉 교사가 생각하는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

〈표 13〉 중점과제별 지속성이 낮은 주요활동 (2018년도)

	주요 활동내용	지속성	만족도	차이
중점1	(초)“울산학생 책쓰는데이~” 학교/학년/학급 문집 발간**	2.05	2.76	0.71
	“손글씨로 쓰며/필사(筆寫)하며 책읽는데이~”*	2.34	2.85	0.51
	(중고)“울산학생 책쓰는데이~” 동아리별 책출간**	2.39	3.40	1.01
중점2	교사,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활동	2.59	2.84	0.25
	인문소양교육 동아리 운영	2.69	2.91	0.22
	학부모 독서교육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참여	2.70	2.86	0.16
중점3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학생 독서 활동에 활용	2.69	2.99	0.3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3.16	3.39	0.23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독서활동 실시	3.25	3.39	0.14
중점4	“다함께책읽는데이~”(가족/이웃동행)동아리 활동*	2.43	2.89	0.46
	학생참여 시·산문 창작교실 거점학교 활동	2.58	2.82	0.24
	“울산학생책읽는데이~”축제 전시 및 체험 부스 참여	2.61	2.96	0.32

*중점과제별로 지속성에 낮은 것을 3개씩 정리함.

〈표 13〉을 살펴보면, 중점과제1의 “학교/학년/학급문집 발간”, “필사활동”, “동아리별 책출간”의 수행 후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필요정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으나, 교사집단과의 인터뷰 및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간부족, 인력부족, 협조부족’ 등이 그 하나의 원인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설문문의 주관식 답변 중 일부분이다.

“독서가 학생의 인성함양 및 학업능력 향상에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울산학생 책읽는데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업무 담당자와 담당부서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상황란을 채우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많은 독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하 생략)” (교사의 주관식 답변 중)

즉, 활동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따른 ‘시간부족’과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협조부족’에서 비롯되는 물리적·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각 활동내용을 수행해야한다는 지속성에 대한 의지는 사업 수행 후 얻게 되는 만족감과 성과보다는 이를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리고 활동을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으나 그에 앞서 그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주요활동의 즐거움과 필요성

학생들 또한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2017년도와 2018년도 모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0.6%,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5.0%로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75.6%의 학생이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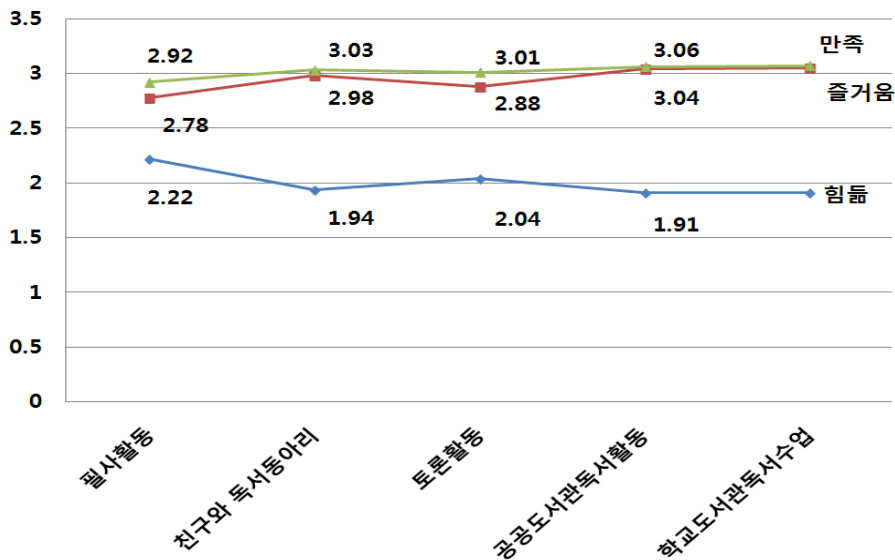
책 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87	20.2	674	25.0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06	56.8	1365	50.6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253	17.8	408	15.1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3	5.2	249	9.2
계	1,419	100.0	2,696	100.0

다음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주요활동의 즐거움, 힘들, 도움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7년도와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과 도움정도(만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의 어려움(힘듦)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5> 참조).

〈표 15〉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즐거움, 도움, 힘들정도(4점 척도)

활동내용	즐거움		도움		힘듦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필사활동	2.49	3.01	2.72	2.92	2.52	2.22
낭독활동	2.68	3.0	2.82	2.96	2.12	1.99
토론활동	2.71	3.1	2.92	3.01	2.20	2.04
교과연계활동	2.69	3.17	2.91	3.02	2.21	2.03
독서동아리	2.82	3.16	2.91	3.03	2.08	1.94
학교도서관독서수업	2.9	3.26	2.93	3.07	2.00	1.91
사용된 책의 내용	2.68	3.09	2.86	2.98	2.21	2.06

이때 즐거움, 힘들, 도움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즐거움과 도움 및 선호도는 정비례관계를, 힘들과 도움 및 선호도는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즐거움과 도움 및 선호도 정도의 1순위는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수업”이었으며 “공공도서관 독서활동”과 “친구들과의 독서동아리 활동”이 2,3순위로 도움과 선호도정도, 즐거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가지 활동 모두 힘들 정도가 가장 낮았다(<그림 5> 참조). 학생들은 즐겁게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힘들게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만족도를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독서 활동을 학생들의 즐거움에 맞추어 구성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즐거움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학생이 생각하는 만족 vs. 즐거움 vs. 힘들

라.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사업의 어려움과 개선점

교사들은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에 대해 기존의 독서 진흥 사업들과 비교할 때 기본 환경(도서구입비, 학교도서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31.2%), 기존 교과목과 독서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18.2%), 학교와 가정(학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16.2%)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16> 참조).

<표 16> 사업의 긍정적인 면 (2가지 선택, 2018년도)

사업의 긍정적인 면	빈도(명)	백분율(%)	사례 백분율(%) ⁴⁾
사업 주체(교육청)의 관심과 투자가 월등하게 크다.	32	12.6	21.9
기존 교과목과 독서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46	18.2	31.5
필사, 낭독, 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9.9	17.1
학교와 가정(학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42	16.6	28.8
지역사회(공공도서관 등)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8	11.1	19.2
기본 환경(도서구입비, 학교도서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9	31.2	54.1
실무자(선생님)와 수혜자(학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0	0	0
기타	1	0.4	0.7
전 체	253	100.0	173.3

또한, 자유 의견을 살펴보면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에 대한 성과에 만족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들의 긍정적인 의견들이다.

“수업에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수업,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들 덕분에 학생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 사업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청의 이러한 지원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크다.”

그러나 교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연도별로 가장 많은 의견을 5가지로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⁵⁾.

필수항목이 많았던 2017년도의 경우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면, 필수항목이 줄어들었던 2018년의 경우 자율성의 확대가 3순위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업내용이 과다하여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며 독서교육사업을 주도할 전문가(사서

4) 사례 백분율(Percent of Cases)은 사례 기준 백분율로 유효 응답자수 146명(2명 결측)을 100%로 보았을 때 각 응답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이 시작된 2017년도에는 232개의 자유의견(전체 응답자의 72.04%)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반면, 2018년도 설문에서는 사업에 대한 불만사항이 76건(전체 응답자의 51.3%)으로 줄고 내용 또한 변화되었다.

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다.

〈표 17〉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유 의견

	2017년도	→	2018년도
1순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필요(54건)		사업내용의 과다로 인한 담당교사의 업무과중(17건)
2순위	사업내용의 과다로 인한 담당교사의 업무과중(43건)		독서와 관련된 전문가(사서교사)확보 필수(14건)
3순위	장기적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27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확대(12건)
4순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조정 필요(25건)		실적 위주의 사업운영 지양(4건)
5순위	독서와 관련된 전문가(사서교사)의 확보 필요(22건)		의무 사항의 폐지(4건)

학생들의 경우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기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만족도는 <표 18>에서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2017년도 80.8%, 2018년도 79.2%로 꾸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학생들의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에 대한 만족도

책 읽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2017년도		2018년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325	23.3	900	33.4
만족한다.	803	57.5	1235	45.8
만족하지 않는다.	195	14.0	349	12.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3	5.2	212	7.9

그렇다면, 학생들은 책임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설문 결과 특히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책임기가 즐겁고,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책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표 19> 참조).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있었다. 자유의견을 통해 정해진 책이나 프로그램을 강요하기 보다 ‘자발적,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43명/20.1%), 필사 프로그램, 낭독 프로그램, 조별 활동이 너무 힘들어 ‘프로그램의 축소가 필요(17명/7.9%)’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24명(11.2%)으로 나타났다.

〈표 19〉 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

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인 변화	2017년	2018년
책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2.86	2.99
책읽기에 대한 즐거움이 생겼다.	2.91	3.02
책 읽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2.91	3.00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3.03	3.07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협동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	2.85	2.95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2.79	2.92
글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2.81	2.90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다.	2.83	2.94
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2.85	2.96
진학 및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2.87	2.98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2.83	2.96
계	2.87	2.97

IV.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의 의의와 발전방안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울산학생 책읽는데이~’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울산의 대표적인 독서진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되어 학교현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2018년부터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1차년도와 문제점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리·분석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업의 추이와 현황조사를 통해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의 사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울산학생 책읽는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울산시민의 독창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 지역의 경우 “행복”, “인문”, “읽기·쓰기·토론”등의 명칭으로 기존의 교육부의 용어를 차용하여 독서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울산의 경우 처음으로 그 명칭에 지역적 색깔을 가미하여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의 교육청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다소 무관심해 왔던 것과 달리 울산은 지역적 색깔을 가미한 브랜드화를 추구함으로써 고유의 색깔을 가진 독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이렇게 독서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것과 더불어 관련 환경을 정비하였다

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평생체육과로 나뉘어 독서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울산학생 책임는데이~’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력의 확보 등의 노력도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활동은 물론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모임 등을 운영하여 내부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와 주요활동내용을 조절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긍정적인 면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책과 친근해지고 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서를 통한 사회성,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업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러나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독서 관련 인프라의 정비와 담당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울산학생 책임는데이~’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독서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교사들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인프라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 또한 독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에 즐거움과 만족함을 느끼며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이에 독서관련 환경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는 울산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둘째, 학교현장의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7년과 비교하여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내용이 축소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인력부족 문제는 사업의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족’의 문제는 학교 규모의 차이와 독서교육 담당인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현장 인력의 부족만을 문제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17, 2018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독서관련 담당자에게만 치중된 업무환경 즉, 업무의 분업화와 협조 문제가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독서진흥사업이 단위학교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범교과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독서담당 교사 혹은 관련교과 교사들만의 업무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 년도에는 교과영역별 중점 독서활동을

6) 148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4.7%,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93.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독서담당업무를 팀제로 구성하는 등 학교의 전체 교직원이 함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즐거움’이 독서 및 관련활동을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즐거움이 따를 때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겠다는 실천 의지 또한 고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독서진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서생활을 즐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이것이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당장에는 과제에 대한 부담감과 힘들다는 감정이 먼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함에 있어 단기적인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독서활동의 양적 조사가 아닌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독서활동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은 독서를 시작하는 시점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어떠한 내외적 심리적 작용을 겪게 되며 어떤 성취감을 얻기를 원하는 지 등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독서활동의 즐거움을 단계별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2002년도 OECD보고서인 “Reading for Change”에서는 독서습관이 미래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이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수 있을까.

독자가 독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독서는 개인의 의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Mckenna 1994: 박주현 외 2015: 서수현 2012: 이성영 2009). 즉,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와 정책 수립은 아이들이 독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은 체계적인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계획 및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교육부는 2009년 9월 독서교육 종합 추진 방향에 따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위한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 교사·학생 및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책 읽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포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계획을 토대로 매년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울산학생 책읽는데이~’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독서교육담당 교사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 주도의 독서진흥사업은 어른들의 생각을 모아 아이들이 긍정적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칫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독서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아이들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받을 맞추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독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바라본 울산시교육청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교육적 목표아래 현장의 입장에서 독서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울산학생들의 독서생활과 울산의 독서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확신해본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생의 독서 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0.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권은경. 2012.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49-269.
- 길호현. 2016. 독서 평가의 실제성 범주에 대한 연구. 『독서연구』, 38: 97-129.
- 김경자. 2016. 내년부터 순차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방안과 전망. 『교육개발』, 198: 28-34.
- 김종성. 2006.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인문학논총』, 11(2): 235-263.
- 김혜숙, 백순근. 2007. 성과측정중심의 교육정책평가: ‘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2): 67-89.
- 문화체육관광부. 2007. 『2007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주현, 이명규. 2015. 독서태도 모델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71-297.
- 변우열. 2012.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39-159.
- 서수현, 정혜승. 2012. 중학생의 읽기 태도 양상. 『독서연구』, 27: 258-283.
- 이성영. 2014. 독서정책의 목표와 수단. 『독서연구』, 32: 213-243.
- 이연옥. 2011.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93-309.
- 이제환. 2012.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17-346.
- 이제환. 2016. 한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1-46.
- 임여주, 정연경. 2014.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영역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 문헌정보학회지』, 48(2): 89-107.
- 정대근, 홍현진. 2014. 청소년 독서유효성 영향요인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271-295.
- Athey. 1985. "Reading research in the affective domain." *Singer and Ruddell,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3rd. ed.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527-557.
- Beck, Michael. 1977. "What are pupil's attitude toward the school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Journal*, 78: 73-78.
- Busse, Gisela von. 1999. *Das Bibliotheks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Handbuch. 3., völlig neu bearb. Aufl. Wiesbaden: Harrassowitz.
- Mckenna, M. C., & Dennis J. K. 1990.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43(9): 626-639.
- Mckenna, M. C. 1994. "Toward a Model of Reading Attitude Acquisition." In: E. H. Cramer and M. Castle.(eds),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The Affective Domain in Reading Education*. New Jerse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McKenna, M. C., Kear D. J., & Ellsworth, R. 1995. "Children Attitude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934-956.
- Walberg, & Tsai. 1985. "Correlates of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 : A national assessment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8: 9-16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 Yeoul. 2012. "A Development of the Contents for the Reading Attitude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Attitude Mode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39-159.
- Jeong, Dae Keun and Hong, Hyun Ji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Reading Effec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1-295.
- Kil, Ho Hyun. 2016. "Study of the application of the authenticity in the reading assessment."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8: 97-129.
- Kim, Hye Jeong. 2016. "Trends in reading education and its related disciplines : Changes and Issues in reading education theor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0: 9-55.
- Kim, Hye Sook and Bea, Sun Geun. 2007. "Performance Measurement Oriented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Focused on 'ICT in Education' Policy." *Asian*

- Journal of Education*, 8(2): 67-89.
- Kim, Jong Sung. 2006. "A Study on Reading Behavior and Culture of Children and Young Adult -With Special Reference to Daegu-." *The Journal of Humanities*, 11(2): 235-263.
- Kim, Kyung JA.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Prospect fo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hich will be gradually introduced from next year." *Education Development*, 198: 28-34.
- Kwon, Eun Kyung. 2012.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49-269.
- Lee, Jae Whoan. 2012.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17-346.
- Lee, Jae Whoan. 2016.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Publ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1-46.
- Lee, Seong Young. 2014. "The goals and means of reading policie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2: 213-243.
- Lee, Yeon Ok. 2011.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93-309.
- Lim, Yeo Joo and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f Identifying Are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Library Reading Programs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89-10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2007 Annual Report of Reading Promo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A Study on the diagnosi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activation plan of students reading*.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Park, Ju Hyeon and Lee, Myoun Ggyu.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ttitude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71-297.
- Seo, Su Hyun and Chung, Hye Seung. 2012. "The Asp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Attitud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7: 258-283.
-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2010.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 Young Adults*.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